

“올림·깊이 있는 곡 보여줄게요”

차트 역주행 걸그룹 하이키

‘건물 사이~’로 멜론 톱 20위

“‘중꺾마’ 공감해준 덕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처럼, 역경을 극복하자는 메시지 담은 가사에 많은 분이 공감해준 덕분인 것 같아요”(엘) 걸그룹 하이키(HI-KEY)는 13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차트 역주행 비결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하이키가 올해 1월 5일 발매한 첫 번째 미니 음반의 타이틀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는 중소 기획사 출신 걸그룹의 곡으로는 이례적으로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곡은 쉬운 멜로디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노랫말이 특징이다.

2월 24일 처음으로 톱100 차트에 진입했고, 이달 10일에는 차트 상위 20위까지 오르는 ‘뒷심’을 발휘했다.

취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인지도가 높은 그룹이 아니어서 발매 직후보다는, 노래를 접한 후에 서서히 진가를 알아봐 주시고, 가사에 공감해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이는 “팬분들이 해주시는 말들 하나하나 마음에 와닿았다”며 “하이키도 아름답게 피어나라”고 말씀해주신 팬 소감이 인상 깊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하이키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의 작



하이키

/GLG 제공

사를 맡은 밴드 데이식스의 영케이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했다.

리이나는 “영케이 선배님 덕분에 저희도 노래를 받을 수 있었고 많은 분께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이키는 지난해 ‘애슬레틱 걸’ (Athletic Girl)로 데뷔해 두 번째 싱글 ‘런’ (RUN)까지 외면의 건강미를 앞세운 ‘운동 아이돌’ 콘셉트로 활동했다.

이들은 올해 데뷔 2년 차를 맞아 내면의 건강도 소중하다는 마음을 담아 대대적인 콘셉트 변화를 꾀했다.

엘은 “이번 음반은 하이키만의 분위기나 스

타일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아직해보지 않은, 하고 싶은 콘셉트도 많다”고 말했다.

하이키는 구체적인 시기와 콘셉트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보에 수록될 곡들을 녹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리이나는 “빨리 좋은 음악을 들고서 많은 분께 하이키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 더 많이 성장해서, 더 큰 무대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단순히 중독성 있는 곡보다는 올림과 깊이가 있는 곡을 통해 사랑받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취서)

/연합뉴스

양자경, 아시아 최초 여우주연상 영예

제 95회 아카데미 시상식

‘에브리씽’ 7관왕 등극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양자경(양자경)이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에브리씽’은 남우조연상 키 호이 판, 여우조연상 제이미 리 커티스의 수상을 시작으로 각본상, 편집상, 여우주연상 양자경, 감독상, 작품상까지 모두 휩쓸었다.

양자경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5회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케이트 블란쳇(‘타르 타르’), 아나 데 아르마스(‘블론드’), 앤드리아 라이즈 버러(‘두 레슬러’), 미셸 윌리엄스(‘파벨만스’)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아시아계 배우가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이 다중 우주를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이 겪는 현실적 고충과 세대 갈등을 SF 장르로 풀어내며 호평받았다.

양자경은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이민 1세대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에벌린을 연기했다.

에벌린은 현실 세계에서는 동성애자인 딸(스테퍼니 수 분)과 갈등을 빚고, 다중 우주에서는 세상을 파괴하려는 빌런 ‘조부 투바키’에 맞서 싸우는 인물이다.

양자경은 수상 무대에 올라 “감사하다. 어린



양자경

/연합뉴스

아이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 가능성이 되기를 바란다”며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자경은 미국 골든글로브, 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를 비롯한 40여 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아카데미 수상을 예고했다.

그의 오스카 트로피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품상을 받은 ‘에브리씽’은 할리우드 4대 조합인 감독·제작자·배우·작가 조합이 주는 상을 모두 휩쓸며 일찌감치 오스카 작품상의 유력 주자로 분류돼왔다.

작품을 공동 연출한 대니얼 관 감독은 무대에 올라 “전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스토리가 가끔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곤 한다”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가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MBC 새 일일드라마 ‘하늘의 인연’ 내달 선행

천륜의 사랑 깨닫는 이야기

MBC는 새 일일드라마 ‘하늘의 인연’을 다음 달 선행본다.

13일 MBC에 따르면 ‘하늘의 인연’은 아버지의 끝없는 탐욕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딸의 한 서린 복수극으로 원수가 된 부녀가 마침내 천륜의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다.

배우 김우석이 돈과 권력이 법보다 강하다고 믿는 탐욕의 화신 강치환 역을, 전해연이 아버지인 강치환의 욕망으로 버려진 딸 이혜인 역을 맡았다.

극 중 이혜인은 자애로운 양아버지와 지극정성을 쏟는 양어머니의 곁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뜻밖의 사고로 인해 삶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

이혜인을 둘러싼 사각 러브라인도 그려진다.

배우 서한결은 어린 시절 사라진 이혜인을 그리워하는 자유롭게 패기 넘치는 청년 하진우를 연기한다.



MBC ‘하늘의 인연’ 출연진 /각 소속사 제공

정우연은 하진우를 마음에 품은 강세나 역을, 진주영은 강세나를 짝사랑하는 문도현 역을 맡았다.

/연합뉴스

손석구, 연극 ‘나무 위의 군대’ 출연

오는 6월 20일 LG아트센터

배우 손석구가 ‘나무 위의 군대’로 오랜만에 연극 무대를 찾는다.

LG아트센터 서울과 제작사 엠피엔컴퍼니는 6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 U+스테이지에서 공연하는 연극 ‘나무 위의 군대’에 배우 손석구, 최희서, 이도엽, 김용준이 출연한다고 13일 밝혔다.

‘나무 위의 군대’는 1945년 4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일본이 패전한 사실을 모르는 채 약 2년간 나무 위에 숨어서 살아남은 두 병사의 실화를 다룬 연극이다.

지원군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극한의 상황에서 견디는 두 병사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전쟁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

진다.

두 병사 중 갖 군에 입대한 신병 역으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카지노’, ‘D.P.’, 영화 ‘범죄도시’ 등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준 손석구가 무대에 오른다.

매체에 출연하기 전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연기 생활을 시작한 손석구는 이번엔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서 관객과 만난다.

전쟁 경험에 많은 병사 ‘상관’ 역은 배데랑 배우 이도엽과 김용준이 함께 맡으며 두 병사의 곁을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 ‘여자’ 역으로는 영화 ‘동주’, ‘박열’ 등에서 활약한 최희서가 출연한다.

연출은 연극 ‘온 더 비트’,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등을 만든 민새롬 연출가가 맡았다.

/연합뉴스



손석구

/셋별당엔터테인먼트 제공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중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이슈 픽 뽀뽀 함께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05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내눈에 콩깍지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오아시스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매너의 게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좋은 날 10:45 헬로키즈 체육교실 11:30 반짝이는 프리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인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면	6:10 세계테마기행 7:00 뽀뽀뽀 뽀로로 7:15 우당탕탕 은하인전단 7:45 뽀뽀뽀 뽀로로 8:00 뽀뽀뽀 뽀로로 8:20 출동! 슈퍼핑크 9:05 슈퍼퍼 영글리시 9:20 빅블루 10:10 한국의 둘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디큐영화 길위의 인생 1:00 바닷강 사람들 2:45 한국의 둘레길 3:35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05 영이 스토리 타임 4:15 페퍼피 5:00 EBS 뉴스 6:00 로보카폴리 7:00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7:30 한국의 둘레길 7:50 극한직업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디큐프리임 10:45 건축탐구 집 11:55 클래스e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이웃집 찰스 8:30 내 눈에 콩깍지 9:00 KBS뉴스9 10:00 시사기획 창 10:50 더 라이브 11:30 KBS뉴스라인	6:3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9:50 오아시스 11:00 스튜디오 K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매너의 게임 7:40 MBC 뉴스데스크 9:00 PD수첩 10:00 헛바닥 종합특기 11:30 100분 토론	6:50 생방송 투데이 7:30 SBS 8 뉴스 8:00 세상에 이런일이 10: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20 모범택시	7:50 극한직업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디큐프리임 10:45 건축탐구 집 11:55 클래스e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성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3월 14일 (음력 2월 23일)

<p>子 48년생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60년생 지식과의 다름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72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84년생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p>	<p>辰 52년생 집안이 화목하니 모든 것이 평온하다. 64년생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라. 76년생 마음보다 실천이 중요. 88년생 생 차분하게 진행하라.</p>	<p>申 44년생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우선으로 하라. 56년생 자신에게 인색하게 굴지 마라. 68년생 대인관계를 넓혀라. 80년생 마음 중심 잡고 흔들리지 마라.</p>
<p>丑 49년생 불행했던 대인관계가 개선된다. 61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73년생 후하게 베풀면 득이 되어 온다. 85년생 조용하고 편한 하루를 보낸다.</p>	<p>巳 41년생 고민 해결이다. 53년생 좌절하지 말고 기다려라. 65년생 예상 밖의 소식으로 기뻐한다. 77년생 시비 구설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라.</p>	<p>酉 45년생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57년생 성실함으로 복은 저절로 온다. 69년생 서둘러도 결과는 같다. 81년생 고생 끝에 낙으로 돌아온다.</p>
<p>寅 50년생 집을 떠나 즐거운 여행이 된다. 62년생 위기가 가면 기회가 온다. 74년생 과로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라. 86년생 노력이 필요한 하루다.</p>	<p>午 42년생 경사가 겹치겠다. 54년생 가족에게 지출이 생긴다. 66년생 선택의 갈등이 생기지만 현명하게 이끌어간다. 78년생 자만심은 절대 금물이다.</p>	<p>戌 46년생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58년생 말 없는 말이 천리간다. 70년생 있는 것을 지키고 현상 유지하라. 82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p>
<p>卯 51년생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 마라. 63년생 여행으로 기분을 전환 시킨다. 75년생 폭넓은 이해심이 필요하다. 87년생 잘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p>	<p>未 43년생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55년생 하던 일에 결실을 보게 된다. 67년생 이성관계를 조심하라. 79년생 노력에 결과는 생기기 기다려라.</p>	<p>亥 47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지키지 마라. 59년생 동분서주한 하루다. 71년생 급한 마음 뒤로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83년생 실속 없는 하루다.</p>